

# 청산조경을 찾아서...



글 | 사진 : 사진작가 김해웅

남해바다 잔잔한 물결이 내륙 김숙이 다다른 곳  
경남 사천시 곤양면 묵곡리에 자리한 (주)청산조경 강선도 대표의  
제1 농장인 곤양 농장을 찾았다.



강선도 (청산조경 대표)

## 벚나무 꽃길 따라 찾아 간곳

유난히도 추운 봄 날씨 탓으로 계절은 4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지만 서울에서 경부 고속도로를 따라 대전 까지 다시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의 무주·장수를 지날 때 까지 온 산천의 초목들은 아직도 긴 겨울잠에 웅크리고 있는데 영·호남 경계인 육십령 터널을 지나 경상남도 지역부터는 산이고 들이고 온통 벚꽃 세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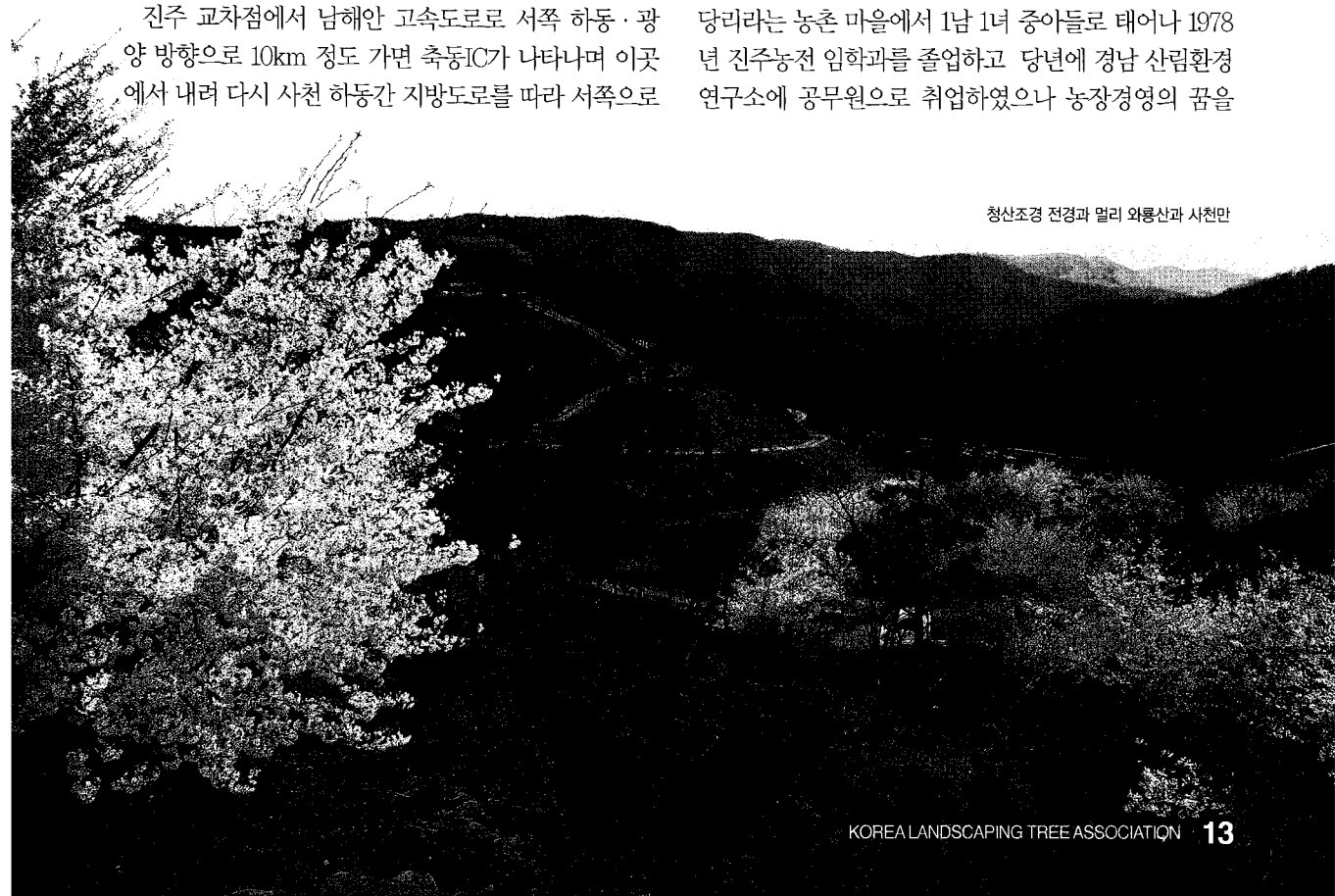
진주 교차점에서 남해안 고속도로로 서쪽 하동·광양 방향으로 10km 정도 가면 축동IC가 나타나며 이곳에서 내려 다시 사천 하동간 지방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4km 정도를 가서 진양호로 향하는 1001번 지방도로 교차점에서 북쪽으로 3km 정도를 가면 활짝 핀 벚꽃 가로수가 빼어난 제방고개라는 제법 높은 고개가 있으며 이 고갯마루 좌측 편 임야를 개간한 청산조경은 흐드러게 피어난 왕벚꽃으로 뒤덮여 있다.

## 농촌과 농장경영의 꿈을 찾아서

그는 1957년 진주시내 북쪽의 접경지역인 잡현면 신당리라는 농촌 마을에서 1남 1녀 중아들로 태어나 1978년 진주농전 임학과를 졸업하고 당년에 경남 산림환경 연구소에 공무원으로 취업하였으나 농장경영의 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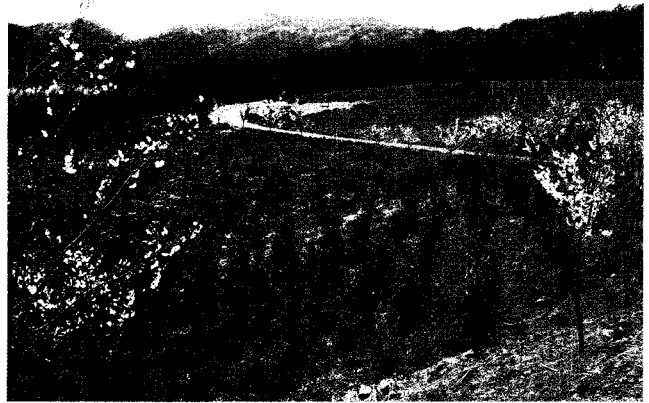
청산조경 전경과 멀리 외룡산과 사천만



버리지 못하고 1년 만에 그만 두고 농사에 매달리다 부친의 성화로 다시금 부성특수제지(주)의 환경관리 부서에 취업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농촌을 향한 일념으로 방통대학 농촌지도과에 입학 농촌과 농업을 위한 공부를 계속 하면서 남들은 힘든 농사일을 버리고 농촌을 다 떠나는데 그는 농촌과 농사를 위해 직장도 다 버리고 1984년 기어 이 청산조경을 설립 조경인의 길로 뛰어 들었다.



왕벚꽃과 목서



동백나무 포지

### 자전거 배달로 시작한 청산조경

1982년 동갑내기 신부를 맞아 결혼을 한 그는 1984년 진주시내 변두리에 조그마한 화원을 열고 조경업 일반 사업자로 등록 청산조경이라는 상호로 화원과 조경업을 겸하는 그야말로 아주 소규모이고 기초적인 소위 말하는 졸 때기 조경업자가 되어 커다란 짐자전거에 조경수와 화분들을 싣고 판매하고 운반하며 직접 심어 주곤 하던, 짐자전거 하나에 의지하여 조경업을 시작, 혼자 힘으로 갖은 역경을 다 이겨내고 오늘의 청산조경을 키워낸 입지전적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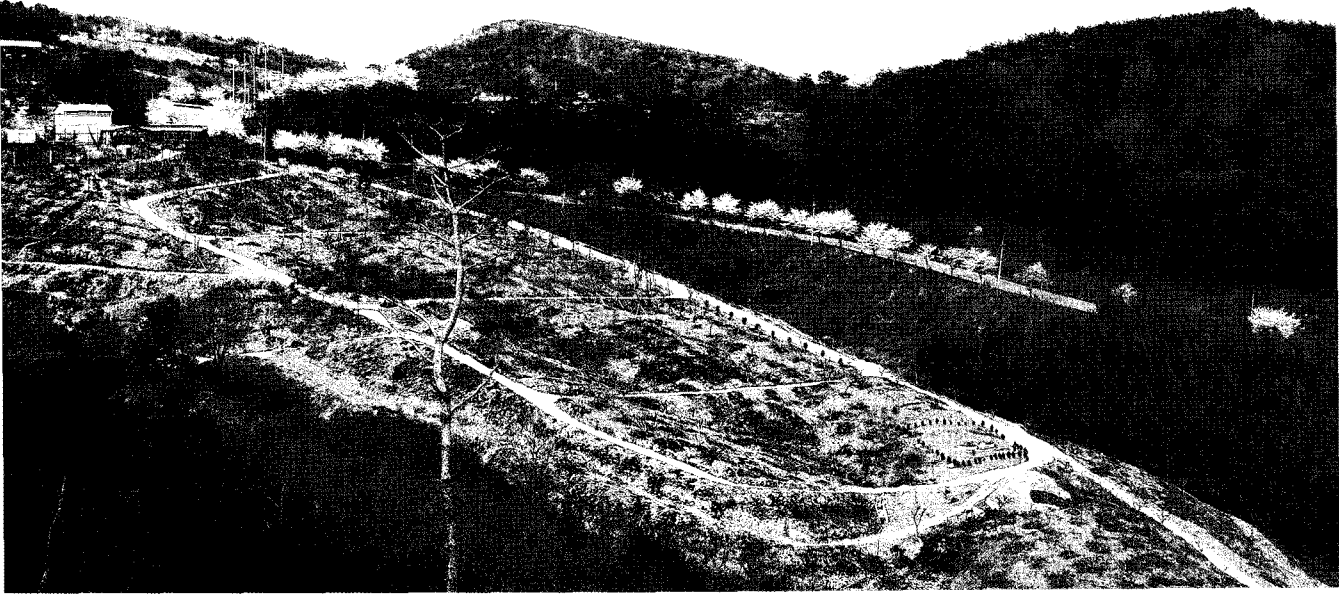
### 조경수 없는 조경업 시작

처음 시작 때는 진주 지역에 많고 많은 것이 조경수 농장들이라 언제든지 쉽게 구입하여 판매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 막상 닥쳐보니 상품성 있고 희귀성 있는 나무들은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대마저 들쭉날쭉 그 애로가 너무나 많아 직접 재배하기로 결심, 1986년 남의 땅 1,000여 평을 임대 백목련 1,000본 단풍나무 500본을 심은 것으로 시작하여 이후 5,000평의 토지를 임대 해송·팽나무·향나무·모감주나무·메타세쿼이아 등을 재배하면서 구입과 판매가 수월해지고 워낙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품이라 한번 거래 했던 사람들은 물론 주변에 자연히 알려지게 되어 어느새 진주지역에서 젊은 조경인으로 기반을 잡게 되었다.

### 조경인의 꿈 자기농장 소유

1995년 조경업 시작한지 10년 만에 진주시에서 서쪽으로 20여km 떨어진 사천시 곤양면 목곡리의 아카시아와 현사시 그리고 일부가 밤나무 발인 야산 7ha를 구입, 드디어 자기 농장을 갖게 된다.

경사가 급하고 표토가 얇아 계단식이나 전체를 파헤쳐 개간하지 못하고 굴삭기 집계를 이용 기존의 나무들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퇴비를 잔뜩 주고 향토수종인 서어나무·층층나무·모감주나무·팽나무·산딸나무·히어리 등을 심고 난대수종인 종가시·붉가시등 가시나무류와 금목서·은목서·애기동백·백정화 등을 심고 해송·철엽수·단풍나무·느티나무 등 일반 대중적인 나무를 심어 어릴적부터 꿈이었던 농장 경영에 온 정성을 다 하였다.



청산조경과 제방 고갯길

### 제방고개와 모란(목단) 시배지

이곳 청산조경 제1농장이 있는 묵곡리는 제방고개 아래부락으로 이조시대 먹을 만들던 곳이라고 해서 먹골 또는 묵실이라고도 불리다가 묵곡리라는 지명을 얻게 되었으며 목단·묵실·동천의 3개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농장이 있는 부락을 목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모란(목단)의 시배지라는 유서 깊은 지역이다.

### 꽃중의 왕이라 하여 화중지-왕이라 불리는 부귀의 상징 모란.

1500년전 중국의 당태종이 신라 진평왕에게 모란병풍과 씨앗 3되를 보내 왔을 때 당시 공주였던 선덕여왕이 병풍 속 꽃그림에 별,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 향기가 없는 꽃이라고 했다는 모란. 그때 가져온 씨앗을 처음 재배하였던 시배지라 하여 지금도 목단이라는 지명으로 불리는 자연부락 뒷산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농장에 서면 발 아래로 이름모를 산봉우리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멀리 삼천포 지역 진산인 와룡산(해발 798m)과 사천만 푸른 바다가 가슴 시원하게 펼쳐진다.

### 86. 88올림픽이 가져다 준 행운

"86년과 "88년 양대 올림픽으로 인한 전국토의 공원화 사업 덕분에 조경수요가 폭발하게 된 것이 영세했던 그에게 찾아온 행운이었다.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품질 좋은 나무들만 취급하였기에 산림조합과 시, 군청은 그의 최고 고객이었으며, 한번 거래했던 곳은 신임을 받아 계속 거래하고 그들이 또다른 이에게 소개하고 권유하여 진주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지역은 물론 부산·경남·경북지역과 멀리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시·군 지자체와 산림조합에 연간 20만본 이상의 조경수를 10여년 이상 판매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조경업이 날로 번창



나무손질하는 강선도대표



황금촉백과 자연생 조형소나무



자연생 소나무 조형목



절개지법면의 개나리식재



자연생 소나무밭의 상록활엽수 수하식재

1995년에 7ha를 처음 구입한 곤양지구 제1농장에 2000년에 연접지역 8ha를 구입 15ha, 45,000평의 대단지 농장을 조성 하였으며 이후 2002년에는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에 6ha를 구입 제2농장을 조성 도합 21ha 63,000평의 넓은 농장을 가진 조경인으로 성장하였다.

### 친환경 재배의 학구파 조경인

조경에 대한 그의 학구열은 지금도 계속된다. 조경수협회를 통한 국내 선진지 견학과 해외연수도 4차례나 다녀왔고 유럽과 남북아메리카는 물론 멀리 아프리카 지역까지 세계 각 곳의 다양한 조경 양식과 선진 기술 등 많은 것을 보고 배워 왔으며 학문을 쌓기 위해 2003년 모교인 진주산업대학 조경학과에 편입 학사과정을 마치고 이어 동 대학의 이공대학원 조경학과 석사과정을 2005년에 졸업하고 지금도 계속 학문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제조제나 독한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풀과 잡초들은 낫이나 예초기로 베어내

고 화학비료 대신 퇴비를 듬뿍 주는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고 있다.

도시화에 의한 옥상조경용 개발을 위해 소사나무·피라칸사스·조형소나무등을 특색있게 키우고 있으며 향토 수종인 노린재나무·헛개나무·히어리·가막살나무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학구파 조경인이다.

### 적지 적수 재배와 토지 이용 극대화

그의 농장에는 헛되게 사용된 땅이라고는 한 곳도 없다. 대형 조경농장에 흔히 있는 입구 가로변이나 중앙 로터리·관리사 주변에 꾸며진 멋진 정원은 물론, 정자나 파고라 같은 시설물 하나 없이 좁은 작업도로와 20평 남짓한 관리 숙소를 빼곤 모두다 상품 생산을 위한 조경수로 꽉 들어차 있다.

15도가 넘는 급경사 지역에 지그재그로 난 작업도로가 경사도 따라 구석구석 편리하게 개설되어 있고 산 아래 양지에는 난대수종인 종가시나무·목서·야왜나



반송과 왕벚나무



조형소나무 재배지



관리사 앞 장송과 강선도대표

무·홍가시나무 등을 식재하고, 음지에는 고산 수종인 마가목·주목·자작나무 등을 심고 도로 절개지 법면에는 개나리 등 차폐 수종을 심었으며, 자연생 소나무들은 그대로 조형목으로 손질하고 그 사이 사이에는 스트로브 잣나무나 동백나무들을 수하식재 하였다. 도로 변 가지지역에는 꽃사과·꽃복숭아·매화·목련 등 꽃나무를 심어 지나는 이들에 풍치를 제공해 주는 배려까지 토지 이용을 극대화 하고 있다.

**황무지를 개척한 제2농장**

2002년 농장을 확장하겠다는 욕심으로 제1농장에서 15km쯤 떨어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의 과거 고령토를 채취했던 폐광지를 구입 하였으나 유기질 하나 없는 척박한 땅에다 점질토로 배수가 불량하고 조그만 가뭄에도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불모지를 매년 300톤 이상의 퇴비를 듬뿍 주고 지하수관정과 배수로와 진입로를 개설하여 지금은 느티나무·왕벚나무·붉가시나

무·농소화 등 15개 수종 35,000여 본의 대경목 위주 조경수를 생산하는 멋진 농장으로 탈바꿈 시킨 억척스럽고 개척 정신이 뛰어난 조경인이다.

**택지개발지역과 도시 조경의 베테랑**

세계 각지를 다니며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연구 개발한 그는 진주지역은 물론 경남·전남과 멀리 서울, 제주까지 특히 택지개발지역과 도시조경의 설계·시공에 뛰어난 솜씨를 발휘 지역사회에서는 베테랑 조경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조경평가에서 전국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은 진주 평거지구 택지와 초전지구 대우아파트 조경공사를 비롯해 멀리 제주도의 연동택지 조경과 서울 신정산 조경·마산 만날 근린공원조경·남강 댐 주변조경과 함안 군민공원 조경이 대표적 시공 실적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 주택공사의 사업을 20여년 꾸준히 수주 받아 일하고 있다.

처음 짐자전거 1대로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직원 8명을 두고 21ha 63,000평의 농장에 70여 수종 90,000여본의 조경수를 가꾸며 매년 10,000여본씩 생산 출하하고 20여 개소의 조경공사를 실행하며 연간 6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 조경인이다.

### 봉사정신과 농장 개방

그는 어린 시절부터 농촌에 살며 농민들에 봉사하고 지도하겠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된 직업도 잡기 전에 방통대학에서 농촌지도 과정 3년을 수료 한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왔기에 진주 라이온스 클럽에서 다년간 중책을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인 “등불” 과 중증 장애인 자립센터 “참샘” 그리고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인 “한마음의 집”에 수년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진주시내의 집이 협소해 공부방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멋진 청소년 공부방”에도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는 필자가 찾아간 날도 그곳 학생 25명을 다음날 초청하여 벚꽃 만개한 농장에서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온가족이 분주하게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부터 출신 모교마다 동창회장직 등 중책을 맡아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 봄이면 지천으로 돌아나는 고사리·취나물 등 산나물과 밤나무·사철 손님이 끊이지 않는 농장으로 가꾸고 있다.



강선도대표 내외와 딸

### 불심으로 키워가는 조경가족

그는 1991년 우리 조경수협회에 가입 한 후 경남서부 지역 사무국장과 유통센터 건립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현재 본회 중앙 이사를 역임하면서 협회 발전과 조경인을 위하여 앞장서 일해온 공로로 2010년 산림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 조경인으로 지금도 협회와 회원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신앙심이 깊은 불교인으로 해인사를 기도 도량으로 정하고 유명스님들과 교분을 쌓으며 진주지역 불교연합과 불교대학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도 모자라 자력으로 진주시내 수정동 금산에 보각사라는 사찰을 직접 건립 불교전도에 헌신하는 불제자이다.

동갑내기인 김영숙(54세) 여사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둔 다복한 가정으로 자녀모두가 서울의 일류대학을 졸업 현재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진주지역에서는 잘 알려진 수재 가정으로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조경가족이다. 